

전국 순회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지난달 3일과 22일에 열린 대전시와 동대문구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1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 설명회는 특허청(청장 하동만)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한미영)가 주관하여 열렸다. 상반기에 8개 지역에서 개최된 동 설명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요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발명 이야기 등을 전함으로써 일반들의 발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지난달 22일 동대문구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동대문구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



▲ 동대문구 설명회에서 '생활속의 발명'을 강의하고 있는 한산중학교 김병오 교사. 생활 속에서 불편을 해소한 발명품을 소개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 지난달 3일 대전 내동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 강의 중인 특허청 정보개발담당관실 이승중 사무관. '특허와 여성의 역할'이 주제였다.

한국여성발명협회 제8차 이사회 및 입주식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한미영)는 지난달 21일 협회 사무실을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로 이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입주식을 가졌다.

8차 이사회와 함께 열린 이날 입주식에는 협회 임원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협회가 더욱 발전하여 여성 발명가들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의견을 나눴으며,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은 '사무실 이전이 협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입주식에 참석한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 지난달 21일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실 이전을 기념하는 입주식 제8차 이사회와 함께 열렸다(왼쪽부터 김애숙 이사, 김선임 이사, 정재욱 부회장, 한미영 회장, 김향순 이사, 이영주 이사, 손인춘 이사).

특허청,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 지식재산 협력 업무협정 체결

하동만 특허청장과 고메즈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CK) 회장은 지난달 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유럽기업들의 한국 진출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한 업무협력협정(양해각서 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체결로 유럽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에 대하여 기업하기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특허청의 적극적인 지식재산 정책 수행에 대한 대내외 인식 제고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유럽기업들이 한국투자시 지재권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럽기업들의 대(對) 한국 투자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무협정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 및 무역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양기관간 업무협력 협의창구

(Contact Point) 지정, 실무자간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지식재산관련 정보 및 의견교환, 우리나라 특허청 지재권관련 정책 및 활동을 EUCCCK 회원기업들에게 홍보한다는 내용 등이다. 협정체결에 앞서 하동만 청장은 지재권 보호를 포함한 지재권 환경의 지속적 정비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인식하에 발명가 및 기업들의 기술 및 투자가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특허청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EU를 비롯한 외국기업 및 투자자들이 더 많은 투자 및 기업활동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아울러 고메즈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에게 한국정부의 지재권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함께 한국과 EU간 지재권제도의 상호이해 및 협력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가교역할의 수행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 포기상표 자동검색 서비스 출현

등록을 포기한 상표를 자동으로 검색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온라인 상표 전문사이트인 아이니드브랜드(대표 김세진 <http://www.ineedbrand.com>)는 등록 포기상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 사용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상표 출원신청까지 할 수 있는 브랜드뱅크를 개발, 지난달 4일부터 무료 서비스에 나섰다.

상표를 특허청에 신청해 등록 결정을 받고서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이 사이트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통과한 브랜드인 만큼 사용가치가 높은 편이라는 것이 아이니드브랜드측의 설명이다. 김세진 사장은 '브랜드뱅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가의 브랜드 네이밍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미 특허청 심사를 거친 상표인 만큼 양질의 브랜드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팀, 슈퍼컴퓨터 개발

국내 연구팀이 1초에 1조110억번 수치 연산작업을 할 수 있는 테라급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항공우주구조연구실 김승조 교수팀은 지난 6월 '몇대의 컴퓨터 중앙연산처리장치(CPU)와 서버를 연결해 하나의 컴퓨터처럼 활용하는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1테라플롭스급 컴퓨터를 자체 제작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삼성전자로부터 주요 부품을 도입해 685기가플롭스급 슈퍼컴퓨터 '페가수스(Pegasus)'를 자체 제작한 바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슈퍼컴퓨터를 평가해 500위까지 순위를 내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 'Top 500'으로부터 최근 세계 57위로 평가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발된 슈퍼컴퓨터는 항공, 우주 비행체, 자동차, 선박 등의 설계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부품 시뮬레이션, 단백질 운동, 바이오 인포매틱스, 나노 시뮬레이션 등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약 먹을 때 효과 높이려면 음식 가려야...

아무리 좋은 약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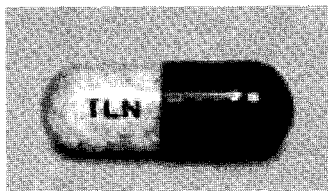
복용약은 음식물과 상호 작용을 일으켜 약효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 자몽주스에 함유된 어떤 성분이 고혈압 치료제인 펠로디핀 간의 대사를 저해해 혈압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밝혀진 바 있으며, 파킨슨씨병 치료제인 레보도파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과 병행하면 단백질 소화로 생긴 아미노산에 의해 흡수가 저해된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처럼 음식 중 특정 성분이 약물과 반응해 약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지만 식사 자체가 약 흡수에 영향을 줄 때도 있다. 대부분 약물은 위장을 거쳐 소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위장에 존재할 때는 흡

수가 지연되거나 흡수율이 떨어진다. 음식물에 의해 흡수가 크게 저하되는 약은 식전에 복용해야 충분한 약효를 얻을 수 있으며 위장 장애가 있을 때는 식사 후 바로 복용하는 것이 위장 자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흡연이나 음주는 약을 복용하는 중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흡연은 간 효소작용을 증가시켜 대사를 촉진하므로 천식 치료제인 테오필린을 함유한 약을 복용할 때 흡연자는 더 많은 양의 약이 필요해진다는 사실이다.

▶ 천식 치료제인 테오필린을 함유한 근화제약의 테올란-비. 흡연자의 경우에는 비흡연자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해야 한다.



기고문

의장등록 출원의 유용성

백건수(백건수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e-mail: patpen@patpen.co.kr
문의전화 (02)538-3951



의장등록 출원을 왜 하는가?

의장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물품의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의장등록 출원은 물품이 전체 되어야 하고, 현행 의장법상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즉 부동산(다리, 건축물 등), 무체물(연기, 불빛 등),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물품 전체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경우에는 물품 전체 디자인 그 자체가 의장등록권리가 된다.

그런데 물품의 외관 형상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물품의 일부분에만 좋은 디자인을 한 경우에는 부분의 장으로 출원할 수 있다. 또한 물품이 없이 단지 캐릭터 등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캐릭터를 의장등록 받으려면 물품마다 출원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므로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장등록 출원시에는 정무상도법에 의한 6면도 및 사시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의장 도면 제출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편이므로 도면 작성에 완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의류, 직물지, 포장지 등은 의장등록 출원을 하면 무심사로 진행된다. 즉 우리나라 의장법은 심사대상 의장과 무심사 대상 의장으로 구별해 놓고 있고, 구별 기준이 모호하므로 출원 전에 심사대상 물품인지 무심사 대상 물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신이 먼저 출원한 의장이나 등록된 의장(이를 '기본의장'이라 한다)과 유사한 의장을 다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사 의장등록 출원을 하여야 한다.

유사 의장등록 출원은 등록이 되면 기본 의장 존속기간의 잔존기간만 존속되고, 기본의장이 어떠한 사유라도 소멸되면 유사의장은 이유 없이 자동 소멸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출원하여야 한다. 유사의장제도엔 많은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데도 여전히 모순된 법 구조 및 판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변리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의장등록 출원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의장은 물품의 디자인으로만 보호를 받는 것이지 물품의 기능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품의 기능을 보호하려면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여야 한다. 의장으로만 출원하면 타인이 물품의 기능을 모방하면서 디자인만 달리하면 침해가 안되므로 제재할 길이 없게 된다. 그러나 디자인과 기능이 일치하는 경우 또는 물품의 기능이 알려져 있어서 디자인으로만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의장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에 감사패 수여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원장 김명숙)은 지난달 16일 여성발전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기탁한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전라북도 지사실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전라북도 한계수 부지사가 강현욱 지사를 대신하여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의 김명숙 원장이 참석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한미영 회장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 증대와 발전을 위해 작은 성의 표시를 한 것'이라며, '사회 속의 등불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를 대신해 한계수 부지사가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 했다.

'경시대회 난립' 서울대 수시모집 지원자격 축소

서울대가 2005학년도부터 올림피아드 대회 이외의 경시대회 성적은 수시모집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대 김우철(金宇哲) 교무처장은 지난달 4일 '최근 입학관리본부 산하 연구팀이 경시대회 입상경력을 수시모집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이에 따라 국내·외 올림피아드 대회를 제외한 서울대 주최 각종 경시대회와 타 기관 주최 전람회 입상 성적은 수시모집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학장회의 등을 거쳐 12월 2005년 3월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뽑는 입시전형 발표 때 이같은 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는 2005학년도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의 지원자격을 국내·국제 올림피아드 대회 입상자나 수학·과학 성적 상위 3% 이내 학생 혹은 성적 상위 30% 이내 학생 중 수학·과학 전문교과를 20단위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대가 수시모집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24개 경시대

회 중 국내외 각종 올림피아드 대회는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환경탐구, 천문, 창의력, 정보 분야 16개 대회다. 이 밖의 경시대회는 서울대 주최의 국어경시대회를 비롯해 논리논술, 언어능력, 수학·과학 경시대회와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전국 과학전람회,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 등이 있다.

서울대는 그동안 경시대회 입상자와 특정교과 성적 우수자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수험생에게만 수시모집 지원자격을 인정해 왔으며, 경시대회 입상경력은 1단계 전형에서 '비교과 영역평가(총점의 50%)'에 반영돼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앞서 서울대는 5월 교내 국어경시대회를 폐지했고,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능력을 겨루는 언어능력 경시대회의 폐지도 검토중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각종 경시대회 때문에 전문학원이 생기는 등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렬한 이미지의 '색채상표' 출원 꾸준히 증가세

제일제당은 지난 1996년 흑백으로 문자와 도형을 넣어 만든 일반상표를 CJ라는 영어단어와 강렬한 청색, 적색, 황색을 넣은 색채상표로 지난해 출원했다. 시각적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같은 색채상표 출원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996년 색채상표제도를 도입한 후 2001년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매년 13~17%씩 꾸준히 증가해 컬러 브랜드화 시대로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올 들어 출원현황을 보면 올해 5월까지 출원된 전체 상표출원 건수 4만6,000건 중 9%에 해당하는 4,100건이 색채상표로 출원됐고 전년동기에 비해서

는 20%가 늘어났다. 특허청은 하반기에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색채상표출원은 1만건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색채상표 출원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문자나 도형상표보다는 수요자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어 광고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 컬러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겐 보수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강렬한 색채로 표현한 브랜드를 내놓음으로써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려는 시도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한편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 대상이 되지 않아 문자나 도형, 입체적 형상 등에 색채를 결합해 출원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 생활 속의 지혜 ◎

방안 담배연기 촛불 켜두면 연기 준다



방이나 실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지만, 집안에 무슨 행사라도 있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 여기저기에서 담배를 피워대곤 한다.

이럴 때에는 환기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촛불을 켜두는 것이 연기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촛불은 주위 연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모래를 유리컵 등에 담아 촛꽂이로 사용하면 보기에도 좋고 촛농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광고문의]

(사)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